

1. 효과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방법

① 스테디플래너

스테디플래너를 사면 항상 6개월치, 1개월치 계획을 세우는 곳이 있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학교에서 보는 교육청/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1~3개월의 단기 계획만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어요. 다들 수험생이라면 공부 순서는 개념-응용-심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뒤쳐지는 과목이 없다면 다들 분기별로 공부하는 영역이 비슷해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 저녁에 오답을 고치고, 남은 시간에 다음 모의고사까지 보완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인강과 문제집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단기 계획은 이번 달에, 혹은 다음 달까지 끝내야 할 콘텐츠를 적으면 돼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제2외국어로 분류한 뒤 각자 보완하고자 하는 영역을 작성해요. 가령, 이번 모의고사에서 국어 문법 개념이 흔들렸다면 어떤 강의를 선택하고, 어떻게 복습할 것인지에 대해 대략적인 개요를 짜면 됩니다.

한 달 동안의 콘텐츠 활용계획을 작성한 뒤에는 이를 4주, 5주로 나누어서 계획해요. 이때는 계획표에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시간을 기준으로 세운 계획표는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어 계획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계획표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오히려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다음 하루에 끝내야 하는 양을 다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기타 순으로 적고, 인강의 양(예: 뉴런 수학1 2강), 문제집의 분량(예: 마닿 1 3회차 풀고 복습), 암기할 부분(예: 사문 개념노트 pg.37~40 암기)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면 돼요. 매일의 공부 순서는 변동될 수 있지만, 가급적 국어 과목은 아침에 배정해 놓는 편이 이후 파이널 기간에 생체리듬을 맞추기에 편리해요.

이때 평소에 흥미가 떨어지는 과목의 경우, 계획표에 할 일을 페이지 수로 명확하게 적는 것보다 분량을 정하는 방법(예: 수특 영독 지문 3개 복습)이 효과적이었어요. 반대로, 평소에 좋아하는 과목을 편식해서 공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선(예: 드릴 수학2 Ch2 17~21번)을 정해 놓고 작성했어요.

② 경쟁심리 이용하기

공부계획이 어느정도 잡혀 있다면, 그 다음 고민은 바로 '실천력'에 있어요. 수능이 끝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칼럼을 연재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했어요. 수능을 준비하는 초반에는 누구나 불타오르는 의지를 결심하고 계획대로 공부하고자 노력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주변에 널린 유혹들에 휘둘리기 쉬워져요. 이를 역이용해서, 경쟁심리를 통해 긴장 상태로 만들고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어요.

학교에서 본인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열품타'와 같은 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옆 친구가 공부하니 나도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유혹에 이끌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커지면 된다는 거예요.

③ 러닝메이트

이 방법은 위의 '경쟁심리'와 연결됩니다. 단, 수능이라는 긴 마라톤을 함께 달려갈 러닝메이트는 경쟁을 통한 공부뿐만 아니라, 서로 응원하는 역할도 해주어야 해요. 예를 들어, 독서실을 가기 싫을 때, 공부가 안되는 날 러닝메이트는 서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고, 독서실 퇴실시간을 정해 그 때까지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기 등 목표를 세워서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해요. 저는 모의고사를 망친 날 친구가 위로해주며 힘내라고 쪽지를 써주었는데,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게 해서 정말 고마웠던 기억이 나요.

④ 하늘 아래 완벽한 계획은 없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도 완벽한 계획은 있을 수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무늬만 번지르르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각종 SNS에 올리며 '보여주기식'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유용한 계획은 '실천이 가능한' 계획이에요. 또한 하루에 적절한 양을 정해 세운 계획도, 당일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수정될 수 있는 유동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1년동안 이런저런 강의를 듣겠다!' 하고 커리큘럼을 짜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아요. 수많은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자신의 약점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강점이 된 부분을 더 이상 강화하지 않아도 되어서 강의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태도는 '계획을 세우되, 계획표에 매몰되지 않는 유동적인 공부'라고 생각해요.

2. 수능 과목별 공부법

① 국어: 사실 국어는 혼자 고민해보고, 왜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거친 과정들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기출과 사설을 균형있게 사용하고, 단권화를 하는 작업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i) 기출을 활용하는 방법

Step 1) 기출문제집 마음 놓고 풀어보기

수능 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기출문제집을 구매할 거예요. 다양한 문제집이 있지만, 저는 국어 해설이 가장 꼼꼼한 마르고 닳도록(일명 마닳) 1을 사용했어요. 처음에 풀어보는 기출문제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찾는 연습을 위해 활용해야 해요. 점수나 시간에 연연해 하지 말고, 내가 올바른 답의 근거를 갖고 정답을 찾았는지, 틀렸다면 어떤 선지와 혼동했는지,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해설지를 보며 파악하는 데 주목했어요.

Step 2) 인강 선생님의 해설과 비교하기

처음 보는 기출문제를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해당 선생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체화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오늘 공부할 지문들을 먼저 풀어보고 해설지로 취약점을 파악한 뒤, 인강을 수강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나아가야 해요. 저는 이원준 선생님의 Brain Cracker&고난도 기출 마스터를 수강했는데, 비슷한 소재별로 묶여 있어서 관련 개념의 스키마(배경지식)를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었고 '왜 해당 선지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들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Step 3) 스스로 출제진의 눈이 되어 생각하기

해설강의를 듣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이 이해되었다면, 단순히 다시 푸는 용도로 기출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해요. 특히 독서의 경우, 기출문제집의 지문만 보이게끔 공책으로 가린 뒤 자신이 출제진이라고 생각하며, 지문의 핵심을 묻는 문제를 만들어 적었어요. 문제를 만들 때는 실제로 그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비교해보며, 출제진이 주목하는 point가 해당 지문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Step 4) 범주화하기

문제를 만들어보고 나면 이후에 접하는 새로운 지문들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길러져요. 동시에 특정 소재의 지문에서, 각각의 글의 구조 사이에 공통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독서 지문들을 인문/사회/과학/예술로 구분한 뒤, 각 소재별로 묶일 수 있는 공통적인 글의 구조를 기준으로 비슷한 유형의 지문들을 묶어 정리했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지문 속 출제 point가 범주화를 하고 난 뒤부터 명확히 드러났고, 소재별로 강조할 점을 다르게 생각하며 지문에 임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어요.

Step 5) 실전 상황 전략 세우기

기출문제를 5번 이상 복습하면 정답과 풀이가 기억에 남아서, 이후부터는 시간을 분배하는 용도와 감 유지용으로 활용해야 해요. 이때 목표 시간을 설정하고, 아침 시간에 풀어보는 것을 권장해요. 문제를 풀 때는 수동적으로 답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문의 해설강의대로 생각했는지, 사고과정에서 잘못 짚은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며 정답의 근거를 다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 저는 모의고사 전, 중, 후로 feedback 종이를 이용했는데 풀기 전에는 어떤 순서로 풀어볼지 정하고, 풀면서 헛갈리는 선지를 표시하며 얼마큼 고민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고, 풀고 나서는 해당 전략을 평가했어요.

ii) 사설 콘텐츠 적절히 활용하기

현강을 듣는 친구들은 해당 선생님의 자료를 이용해도 되고, 인강을 수강하는 친구들은 근처 학원에서 별도로 원하는 주간지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어요. 저는 1월부터 10월까지 주간지를 활용했고, 매주 한 회씩 실모를 풀어내는 연습을 했어요. 평소에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리하게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만약 주간지를 활용하고 싶다면, 한 종류의 주간지만 꾸준히 구독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또한 모의고사 직전과, 수능이 임박한 11월부터는 사설 콘텐츠보다 기출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하고, 기출문제만이 지닌 출제자의 빈출 지점을 잡아내는 데 주력해야 해요. 사설은 그저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iii) 화법과 작문, 일관된 태도로 풀기

2022수능부터는 화작과 언매가 선택과목으로 바뀜에 따라, 문제 구성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화법과 작문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쉬워요. 자주 빈출되는 선지들만 정리하면 금방 문제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서 실수만 주의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저는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 10개년치 화법과 작문 문제를 이용해서 어떤 구문이 선지에 나왔고, 지문 속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정리했어요. 이렇게 선지 구성을 단일화하면 익숙하게 느껴지는 선지들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일관된 태도로 처음보는 문제들을 대할 수 있어요. 총 한 달이 소요되었는데 만약 시간이 부족하고 부담스럽다면, 5개년치 기출문제에서 첫 페이지만 정리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수능 당일에 첫번째 페이지를 풀고 나면 긴장할 틈도 없이 시험지에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서 기세를 잃지 않고 자신감있게 풀어내려면 꼭 정리해봐야 해요.

iv) 문법, 단권화가 필요해!

문법은 학교 내신과목으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내신기간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개념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문법은 처음 보는 문제에서 어떤 점을 묻는지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해요. 저는 신용선 선생님의 스캔 문법을 수강했고, 평소에 헛갈렸던 개념 사이의 구분 기준을 배울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또한 어렵게만 느껴졌던 지문형 문법 문제들을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통해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서 효과적이었어요. 스캔 문법을 수강하고 나서 배운 판단 기준들과 EBS 수특 화작문에서 스스로 분석한 미출제 요소들을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의고사 직전, 수능 직전에 복습용으로 학습하기에 용이했어요.

v) 문학과 독서의 균형 맞추기

저는 독서에 비해 문학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독서 공부에 비중을 두었지만, 독서의 취약함을 극복해 낸 뒤에는 문학과 독서의 공부 비율을 1:1로 맞추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쪽에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수능 시험은 정기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나와야 해요. 수능 응시 과목별 공부의 비중을 균일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국어 과목은 화작문, 문학, 독서의 공부량을 1:1:1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② 수학: 기초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수학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개념강의를 수강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연결고리들이 11월에 가까워지면 킬러문제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턱대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개념과 응용, 심화의 사고과정을 단일화하는 공부에 주목해야 해요.

Step 1) 기출문제를 통해 기본 개념 복습

12월부터 2월까지는 기출문제집 3권(수학1, 수학2, 확통), 수분감, 뉴런을 사용해 개념 이해에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했어요. 보통 내신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접하긴 하지만 굉장히 일부분만을 다루게 되고, 깊이있게 문제를 '분석'하지는 못해요. 수분감에서 현우진 선생님은 다양한 풀이와 해당 개념을 같이 설명해주셔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또한 뉴런과 호환이 잘되어서 배울 점이 많은 강의라고 생각해요. 뉴런은 수능 전까지 총 7회독을 했는데, 5회독까지는 개념과 전체문제를 모두 복습했고, 6~7회독은 취약점을 선별해서 진행했어요.

Step 2)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기

3월부터 5월까지의 뉴런 1회독과 함께 타사 인강을 들으며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뉴런에서는 보통 3개정도의 풀이를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 풀어서 맞았더라도 강의 중 필기한

풀이를 보며 같은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했어요. 이때 내신대비를 하면서 기존에 쓴 수학 개념노트에, 뉴런 개념(remark 등) 중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보완했어요. 1회독을 진행하면서 부교재인 시놉스도 함께 활용했어요. 최대한 뉴런에서 배운 관점으로 문제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6월 모의고사를 준비했던 6월 한달은 이때까지 수강한 강의에서 배운 실전적인 tip 및 행동강령을 정리했어요. 약 A5용지를 기준으로, 양면 6장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했고 모의고사 전날에도 꼼꼼히 보며 사고를 정리했어요. 모의고사 일주일 전부터는 기출문제집에서 취약 단원을 다시 풀어보며, 수분 감에 있는 해설과 비교하며 공부했어요.

Step 3) 킬러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운동

여름방학에는 N제 교재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기간이에요. 저는 배운 내용을 많은 문제에 적용해보고, 새로운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어서 2권의 N제를 선택했어요. N제 문제집은 원본의 기출문제의 사고과정 중 필요한 부분을 유지하며 변형했는지, 그리고 킬러 문제의 접근법을 배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게 좋아요.

방학 기간에도 뉴런을 복습하면서 내용을 점검했어요. 3회독을 시작하니까 새로운 내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풀면서 연결되는 개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떤 문제에서 무슨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signal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름방학은 1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EBS 연계교재를 빠르게 한번 풀 수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고 싶어서 교재를 따로 구매하진 않았고, EBS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아서 태블릿으로 문제를 보며 연습장에 풀었어요. 틀린 문제 혹은 발상이 필요한 문제는 문제 옆에 간단히 메모하면서 문제를 선별했어요. 이 방법은 나중에 파이널 기간에 유용하게 쓰이는 공부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시만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가장 큰 장점은 여름방학을 자소서나 면접 준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수능만 준비했기 때문에 N제와 뉴런 복습, EBS 연계공부를 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 실전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또한 6월 모의고사에서 시간을 운용하지 못하고 두서없이 풀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이른 시기에 모의고사를 연습했어요.

Step 4) 킬러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않는 법

9월 모의고사는 실력이 어느정도 완성되는 기간에 보는, 가장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9평 전에는 킬러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9평 이후부터는 보완할 부분을 균형있게 채우는 데 집중했어요.

킬러문제를 풀어내는 실력은 개념에서 쓰인 연결고리를 잘 정리해서, 호흡이 긴 문제를 실수없이 풀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저는 드릴과 타사 교재를 이용해서 킬러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데에 집중했고, 틈틈이 뉴런과 그동안 푼 문제들을 복습했어요. 이런 고난도 문제들을 접했을 때의 장점은, 혼자서는 보이지 않았던 심화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드릴은 개념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어떤 문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어요.

9평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는 수특과 수완에서 틀렸던 문제들과, 제가 직접 선별한 문제들을 다시 풀었어요. 생각해내지 못한 idea로 풀리는 문제나, 자주하는 실수들이 보였던 문제를 위주로 선별했는데, 실제로 해당 문제가 9평에 반영이 되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모의고사가 임박해지면 각종 매체에서 연계교재 선별 문제집이 거론되는데,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료보단 자신의 취약점을 바탕으로 고른 문제들을 모두 완벽히 한 뒤 시간이 남을 때 가볍게 점검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수능 한달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실수와 함정에 빠져 보아야 해요. 미리 경험해 놓아야 수능장에서 비슷한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때 자주 보이는 실수들은 실수노트를 단원별로 만들었고, 킬러문제의 함정들은 Killer's IDEA라는 이름의 노트로 정리했어요. 킬러의 주제와 그에 따른 행동강령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를 정리하면 단시간에 킬러문제를 풀어내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또한 실모를 풀면서 발생한 시행착오들을 모아서 시험장에서 행동하는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가령, 저는 시험 초반에 하는 계산실수를 방지하고,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1번부터 14번, 22번부터 27번까지는 30분 안에 풀고, 3초 안에 풀이전략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넘어가는 식으로 전략을 세웠어요.

Step 5) 모든 과목은 복습으로 귀결된다

그전까지 문제를 복습할 때는 개념 부분을 모두 보고, 전문제를 다시 풀었지만, 뉴런 6회독과 7회독은 헛갈리는 부분의 개념만 보고 문제들도 선별해서 복습했어요. 이때 다시 푸는 문제들은 연속으로 다섯 번 맞은 문제랑 세 번 이상 틀린 문제만 포스트잇으로 표시했어요. 왜 다섯 번 맞은 문제를 풀어야 하나면, 파이널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게 아니라 자신감을 유지하고 실수를 줄이며, 배운 내용이라고 자만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기간에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했어요.

비슷한 이유로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서 제가 세운 행동강령을 수정했고, 단원별로 취약한 유형을 하나씩 정했어요. 총 10가지의 주제로 요약되었는데, 해당 주제의 문제가 출제될 시 어떻게 풀어내고 어떤 도구들이 있을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한 앞서 얘기한 Killer's IDEA 노트에도 더 좋은 전략이 생각났을 때 보완하고 수정했어요.

실모는 수능 한달 전까지 꾸준히 일주일에 2~3개씩 풀었는데, 오답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험지에 쓰기에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실모는 해당 문제를 잘라서 노트에 붙이고, 제 풀이와 선생님 풀이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오답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좌측 상단에 문제를 잘라 붙이고 우측 상단에는 왜 틀렸는지, 틀린 이유를 분석하고 주의할 점을 작성했어요. 이때 오답노트에는 실모나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 이외에도 풀이에 확신이 없는 문제, 더 나은 풀이가 없는지 고민되는 문제를 모두 붙였어요. 아래엔 제 풀이와 선생님의 해설을 모두 작성했고, 아예 생각해내지 못한 구간을 파란색으로 작성했고, 연관된 개념을 빨간색, 계산은 검은색으로 작성했어요. 오답노트를 작성하면 복습하면서 어느 부분을 생각해내지 못했고, 어떤 곳에서 잘못 해석했는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후에 수능이 임박했을 때는 수학노트를 다시 읽어보면서, 수특과 수완에서 선별한 문제들을 다시

푸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 복습할 때는 본인이 처음에 쓴 메모를 가리고 푸는 다음, 제대로 생각해냈다면 메모를 지워가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수능 전에 연계교재를 복습하는 것을 추천해요. 확통의 경우, 연계교재에서 제시된 사고과정이 수능에 잘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③ 영어: 절대평가로 바뀐 과목이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오랫동안 배운 친숙한 언어인만큼 영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능 당일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학교 별로 감점이 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어를 아예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계교재를 세 번 정도 복습하는 것과 헷갈리는 단어를 재정비하는 것, 필요시 해당 유형만을 모은 비연계 학습에 주목했어요.

i) 연계교재 3권을 모두 봐야 할까

영어 연계 교재는 크게 3권이에요. 수특 영어, 수특 영독, 수완 영어로 나뉘고, 이 중 어떤 교재에서 연계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3권 모두 학습하셔야 해요. 단, 우리의 목표는 빠르고 컴팩트하게 복습하는 것이므로, 꼼꼼히 문법과 구조를 문장마다 분석하는 건 시간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 조정식 선생님의 분석강의를 수강해 최대한 지문을 친숙하게 하려고 했어요. 이때 모르는 단어 하나 한번에 이해가 되기 어려울 것 같은 긴 문장들을 간단히 적어 모의고사 전날에 보았어요.

이외에도 타사의 연계교재 변형문제를 활용했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 주셔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변형문제의 적중을 보는 게 아니라, 답과 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이 지문이 기억이 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ii) 자투리시간으로 단어를 재정비하는 법

영어 단어장을 따로 구입하진 않았고, 대신 조정식 선생님의 영어 미니 단어장을 같이 사서 이동시간(집-독서실, 집-학교 사이 도보 시간)에 들고 다녔어요. 연계 교재 단어장을 보면서 포스트잇도 들고 다녔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는 포스트잇으로 헷갈리는 단어들을 표시하며 까먹지 않게 외웠어요.

iii) 약한 유형만 골라 듣기

사실 9평 전까지는 비연계 학습을 안 하다가 9월 모의고사 점심시간에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어를 풀다가 머리가 아파서 비연계 문제를 2개 틀렸어요. 이를 계기로 시험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깨닫고, 평소에 오래 고민하는 유형인 순서/삽입 문제와 빈칸 문제만 부분적으로 인강으로 학습하며 행동전략을 세웠어요.

④ 탐구: 저는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를 탐구 과목으로 선택했어요. 두 과목 모두 일반사회 분야라서, 공통점이 정말 많아요. 정법과 사문 모두 과목 특성상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선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시간으로 도표문제/선거구 문제를 풀어야 해 시간압박이 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도 차이점이나 특징적인 구문 표현을 그대로 출제하기보다는, 문제의 핵심이 카드게임이나 퀴즈쇼 등 다양한 포장지에 싸여있고,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사소한 개념들을 출제해 허를 찌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명확하

개 개념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해요.

Q1) 정법/사문 공부 순서 + 개념강의 꼭 들어야 하나요?

사회탐구 공부는 개념정립-문제응용-심화개념 선별-EBS 연계분석-킬러문제 학습(양치기)-오답 및 실수노트 만들기 순으로 진행했어요. 정치와 법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 있었던 과목이었고 담당 선생님께서 수업을 정말 잘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개념강의를 듣진 않았습니니다. 반면 사회문화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과목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 개념인강을 들으며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개념을 익혔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내신범위 탐구 과목+고등학교 3학년 내신범위 탐구 과목 이렇게 2개를 정하더라고요! 만약 내신기간에 열심히 공부했다면, 굳이 개념강의를 두 과목 모두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Q2)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기출문제집을 풀면 문제집에 푼 뒤 오답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는 기출을 완벽히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기출문제집을 풀며 모르는 선지가 제시되었을 경우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을, 제가 고른 답의 확신도가 50% 이하일 경우 회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놓으면서 연습장에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채점을 하고 나서 오답문제를 고칠 때 어떤 부분에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 분석하는데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사후 풀이가 끝난 뒤 문제 위에 있는 여백에는 맞았을 경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맞았으나 회색 형광펜이 존재한 문제는 △표시, 노란 형광펜이 있었거나 틀린 문제의 경우 X표시를 한 뒤 해당 문제에서 한 실수와 헷갈렸던 선지는 별도의 노트에 간단히 적었어요. 이렇게 꼼꼼히 기출을 분석하고 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특별히 문제 옆에 표시가 많은 문제를 모아 모의고사 전에 다시 복습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Q3) EBS 연계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저는 EBS 연계교재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기출문제집을 풀어나갔는데, 평일 저녁에는 사회문화 1시간-정치와 법 1시간의 순서로 총 2시간씩 기출문제집을 풀었고 주말에는 EBS 수능특강을 소단원 2개씩 분석했어요. 저는 어떤 과목이든지 해당 문제집의 목표를 세워서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EBS 연계교재 분석을 크게 '생소한 유형 파악'과 '새롭게 조명받는 개념 잡기'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했어요.

첫번째로 분석한 이후에는 EBS 연계교재에 비중있게 출제된 개념들, 새로운 유형들과 해당 유형의 접근법을 따로 단권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저에게 어려웠던 심화개념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정법은 연계교재에서 얻은 새롭고 낯선 선지들을 정리하는 데 주목했어요. 사문에서 가장 주의 깊게 공부했던 부분은 이론 간 공통점과 차이점, 특정 이론이 제시될 때 높은 빈도로 나오는 구문, 그리고 도표 문제를 해결할 때의 일관된 행동강령을 수립하는 과정이었어요. 6월 모의고사 이후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이 작업을 진행하며 사고 과정을 정리하다 보니 사회탐구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어요.

Q4) 탐구도 사설모의고사를 풀어야 하나요? + 실전감이 중요할까요?

남은 기간에는 사설 실전모의고사를 풀며 실전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실전모의고사

를 푸는 동안에는 최대한 긴장을 많이 하고 부담을 주도록 거실에서 가족들 앞에서 풀거나, 시간을 20분으로 맞추고 해결하고, 시끄러운 학교 점심시간을 이용해 복도에서 푸는 등 부담감을 이기는 연습을 진행했어요. 조용한 독서실에서 실모를 푼다면 수능 당일날 긴장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소음으로 집중이 되지 않을까봐, 최대한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약조건을 상상해 적은 뒤 실제 시간에 맞추어 순서대로 보면서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께 부탁드리면서 연습해보았어요.

연습한 뒤에는 채점을 하면서 미리 부탁한 돌발행동에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해결책을 써 보기도 했어요. 대신 점수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채점 이후 흔들렸던 개념이나 유형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수능 3주 전부터는 실모를 풀지 않았고, 대신 불안감을 누르고 수능준비를 위해 풀었던 모든 책들을 과목별로 한 장 분량의 종이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 기간에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사후 feedback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한 문제 때문에 내 대학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집중이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보다는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어요. 다양한 상황을 연습했고, 많은 문제에 적용하며 마지막까지 개념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총정리하는 방법은 뒤에 다시 언급할게요.

3. 성적 상승의 무기! 나만의 학습 아이템

① 국어, 기출문제 분석노트가 필요한 이유/전문 읽기/약조건 연습

아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는 꼭 노트 두 권이 필요해요. 첫 번째 노트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습장이나 이면지로 대체해도 좋아요. 이때는 위의 국어 공부법 Step 2에서 강의 전 예습할 때 구조도를 그리거나, 강의 중 필기를 쓰고 비교할 때, 그리고 Step 3에서 출제진처럼 문제를 만들어 볼 때 사용해요. 이후 두 번째 노트는 기출문제를 적어도 5번 이상 본 뒤, 유사한 글의 구조를 지닌 독서 지문들을 묶어서 범주화할 때 사용했어요. 저는 처음 세운 범주화 기준을 계속 해서 수정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 노트북을 이용했지만, 어느정도 분류에 확신이 생겼을 때는 기준과 해당 전략/태도를 손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아요.

또한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현대소설 및 고전소설, 수필의 전문을 읽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읽었어요. 매주 일요일은 오전에 성당에 다녀온 뒤 간단한 산책을 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주로 읽었어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을 읽으며 서술상의 특징을 미리 잡아보고 싶었고 만약 연계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익숙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제 강점이지만, 수능장에서도 낯선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지 안심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모를 풀기 전 친구와 함께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약조건을 20개 정도로 써보고, 실모를 풀면서 연습해보며 대응책을 마련했어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6번에 다시 언급할게요.

② 수학 노트를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개념노트-실수노트-Killer's IDEA로 이어지는 유기적 연결

보통 7월에서 8월 사이에 수학 N제와 실모를 많이 풀어요. 이때 계속 오답을 고치면서 왜 틀리는지 분석해보면, 실수가 항상 일관된 곳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령, 어떤 문제집을 풀면서 특정 조건을 잘못 해석했는데 다른 문제집을 풀면서 똑같은 부분에서 동일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맞다... 이거 이렇게 하는거였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거예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실수노트라고 생각해요.

실수노트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반대로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해야 해요. 검정색 펜으로 실수한 부분을 작성하고 파란색, 빨간색 펜으로 실수와 보완책을 작성했어요. 저는 양면 1장 분량을 소단원 한 단원의 실수노트로 정하고, 수학1에서 1단원 1장-2단원 1장-3단원 1장, 수학2에서 1단원 1장-2단원 1장-3단원 1장, 확통은 확률 1장-통계 1장, 기타 자잘한 실수들(수학1, 2, 확통 제외 실수들) 이렇게 종이를 배분하고 썼어요. 실수노트는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수를 잡는데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쓴 노트를 모의고사 전날, 그리고 시험 직전에 보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내가 했던 실수들을 모두 인지한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수학문제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킬러문제를 공략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세워야 하고, 나만의 약점을 찾고 해결해야 해야 해요. 저는 드릴을 풀면서 많은 오답이 나와 고민 끝에 Killer's Note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드릴 옆에 remark 부분에 해당 문제의 개념이 써져 있고 킬러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결책, 즉 유형에 따른 행동강령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먼저 각 킬러 유형을 "IDEA) (해당 유형): (해당 유형에 대한 행동강령)" 순으로 작성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에요. 전 적분부분을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10월까지의 적분 단원이 제 최대 약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연필로 행동강령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제 강점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수능장에서 20번 문제를 한번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노트들을 쓰고도 그냥 자주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옳은 정답과 틀린 정답을 골랐을 때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 과정에서 강점 유지는 실수 없애기로 이어지고, 그래서 실수노트를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점 보완은 킬러노트에서 킬러의 핵심을 파악하고, '아 다 거기서 거기를 묻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많은 문제를 접하고 행동강령대로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킬러노트를 쓰고, 실모를 풀고 오답노트를 쓰다보면 어느 순간 '이건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약하다'고 느끼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보통 수능 한달 남았을 때 한 소단원에서 흔들리는 유형이 한 개 정도 나왔는데 하루는 오답노트를 복습하면서 이러한 유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수능 3주 전까지 약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썼어요. 약점을 보완할 때는 이미 풀어본 문제들을 선별해 복습해 보는 것이 좋아요. 다시 풀어보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응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니까 정확히 맞고 틀림을 매기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일반화할 수 있을까?' 하고 도구를 정리한다고 생각하면서 복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③ 한국사 압축하면 몇 장 나와요?: 요약노트 4장!

수능 필수 한국사는 단기간에 키워드만 잡으면 손쉽게 1등급을 이뤄낼 수 있어요. 한국사 문제는 크게 선사~삼국:고려:조선:일강~근현대사 문제가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기 때문에 각 시기 별로 1장씩만, 단어 중심으로 요약하면 4장의 요약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개념강의로 이다지 선생님의 이다지도 한국사 개념완성을 수강했고, 요약자료를 만들 때는 김종웅 선생님의 3시간 한국사 압축강의를 수강하며 모의고사 및 수능 전날에 종종 복습용으로 사용했어요.

④ 탐구과목도 오답노트, 실수노트가 필요할까: 오답노트, 요약노트 만들기

파이널 기간에는 탐구과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단, 개념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보는 것보다 약한 부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올해 연계교재에서 주목한 부분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해요. 수학과 마찬가지로, 탐구과목도 오답노트, 요약노트를 각각 1~2장 분량으로 만들었어요. 대신 탐구는 잘못 생각한 선지만 골라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적게 소요되고, 간편한 수첩에 옮겨 적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복습하기 좋아요. 요약노트는 과목별로 양면 2장 분량이 사용되었고, 공통점의 경우 "(개념 1)=(개념 2): (개념 1과 2의 공통점)"의 형식으로, 차이점의 경우 "(개념 1) ≠(개념 2): (개념 1과 2의 차이점)"의 형식으로 필기했어요. 또한 정법에서는 상속 문제/선거구 문제가, 사문에서는 도표 문제/인구부양비 문제가 킬러문제로 종종 출제되어서 각 유형에 따른 행동강령을 따로 세웠어요.

⑤ 집중이 안 될 때, 제2외국어 단어 암기: 카드리링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성조 하나가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동사와 형용사를 최대한 많이 암기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고리형 카드리링에 단어카드를 연결해 독서실에서 퇴실할 때, 점심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에 틈틈이 보면서 단어에 친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한 과목을 오랫동안 공부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는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단어카드를 활용했어요.

⑥ 시험장 환경을 '예습'한다: 스트레스 받는 환경 강제로 만들기

앞서 과목별 학습방법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저는 시험장의 낯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예습'했어요. 실제로 가장 떨렸던 9월 모의고사에서 자리를 맨 앞에 배정받아서 시험을 보았고, 앞에서 감독관 선생님이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느껴져서 탐구 시간에 잠시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신경이 쓰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5번째 전과목 실모 날은 동일한 칸막이를 사용해 앞자리에 앉아서 연습하면서, 담임선생님께 '부담스럽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감독관 선생님' 역할을 부탁드리고 연습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만약 낯선 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쉽게 당황하는 편이라면, 실모를 풀면서 최대한 많이 대비해보는 것도 좋아요. 단,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자습시간이 많고 대부분 가정학습을 써서 반에 친구들이 적을 때 연습하셔야 해요! 부득이하게 친구들이 많이 모인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한다면 유튜브 '백색소음'이 울리시는 멘탈 강화용 극한 수능 ASMR을 추천해요. 실제 타종 소리와 비슷하고 펜 딸깍거리는 소리, 스피커 음질 문제, 기침 소리, 코 푸는 소리 등 다양하게 거슬리는 소리들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4. 정시 전형 준비방법 및 합격전략

① 선택과 집중

자신이 목표로 세운 학교가 있다면 입학처에서 모집요강을 찾아보거나, 학교의 홍보자료를 이용해 과목별 반영비를 알아볼 수 있어요. 저는 정시 원서를 접수하기 전 저에게 유리한 반영비를 가진 학교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한 학교별로 변환 점수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② 엑셀로 합격예측 프로그램 200% 활용하기

정시 원서 접수 3주 전부터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예년도 합격선과 당해 지원자들의 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표시되는 불합격 예상/추가합격 예상/최초합격 예상 커트라인을 참고해서 원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엑셀을 이용한 '표본 분석'이에요. 다양한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상 대학과 학과를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 표본을 엑셀로 옮겨서 표본의 이동 추이를 지켜봐야 해요. 아무리 수능 성적이 좋아도 그해 년도에 폭발하는 과에 원서를 썼을 때, 작년에는 붙을 수 있는 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불합격 점수가 될 수 있어요.

③ 화려한 입시의 마무리는 점공으로

1년 더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 안정 2개, 불안정 1개로 원서를 넣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반대로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수생, 1년 더 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경우 불안정 1개, 소신 1개, 적정 혹은 안정 1개로 원서를 작성하는 편이에요. 누구든지 한 개의 원서는 높여서 넣은 과가 있기 때문에, 정시 원서가 발표되기 전 자신이 합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점수 공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원서 접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경과하면 표본이 대부분 들어왔다고 판단하는데, 이때는 자신이 분석한 표본이 실제로 지원했는지와 어떤 표본이 새로 유입되었는지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합격선을 추정할 수 있어요.

5. 인터넷 강의 선택 및 활용방법

①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대는 정하자

저는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학원보다 인강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인강으로 주로 학습했어요. 대신 인강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규칙적인 학습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꼭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인강을 수강하는 시간대를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학교에 가서 주간지를 풀고 난 뒤 곧바로 국어 강의를 1강씩 수강하고, 점심 이후 4교시부터 수학 강의 2강을 수강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야 해요. 편한 시간대에 듣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 시간을 나누는 것을 추천해요. 몇 시간이 걸리던 국어-수학-영어-사탐-제2외국어 순으로 공부하면 이 루틴이 습관이 되어서, 파이널 기간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적응하기에 유용해요.

② 어떤 것을 얻어갈까

어떤 문제집이나 인강을 이용해 공부를 시작하기 전, 저는 책 앞에 얻어가고자 하는 목표를 작성했

어요. 저는 여름방학에 정치와 법 EBS 연계교재를 공부하고 난 뒤, 이를 이용한 "고난도 선지로 구성된 문제를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서 김용택 선생님의 1차, 2차 단원별 모의고사를 수강했어요. 수득과 수완에서 분명 봤는데, 빠르게 판단하는 데 어려웠던 선지들을 정리해 선지 노트를 만들었고 수능 전날까지 꼼꼼히 보며 효과적으로 개념의 빈틈을 메꿀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강의나 문제집을 시작하기 전에 '얼어 가고자 하는 것'을 써 놓으면 학습할 때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③ 실수로 틀린 문제와 몰랐던 문제 구별하기

뉴런의 경우, 문제가 한페이지 한 개씩 있어서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첫번째로 풀고 난 제 풀이-선생님의 풀이 2~3개' 순으로 필기한 뒤 복습 시에는 공책으로 가려 놓고 연습장에 풀었어요. 문제 위에는 세 가지의 기호로 맞음과 틀림을 구분했고, 이 표기방법은 전과목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처음 문제 번호에 채점할 때, 인강을 수강하기 전에 풀었을 때 맞았으면 O, 틀렸지만 선생님 도움 없이 스스로 고친(대부분 실수 때문에 틀린) 경우 △, 아예 틀려서 강의를 듣고 고친 경우는 X를 표시하면서 1차로 문제를 풀었어요. 2회독부터는 문제 번호 위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O는 복습 시 맞은 경우, △는 거의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실수로 틀린 경우(이때는 실수노트에 해당 실수를 작성하게 됩니다), X는 아예 사고과정이 틀려서 필기한 내용을 다시 봐야했던 경우를 의미해요. 이때 처음에 교재에 풀이과정을 잘 적어놓는다면, 나중에 X표가 있는 문제에서 다시 강의를 재수강하지 않아도 즉시 사고과정을 고칠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6. 수험생활 성공 노하우(건강관리, 수면관리, 슬럼프 극복 등)

① 오늘만 산다

매일 꾸준히 공부하되, 오늘 계획한 일은 최대한 끝내도록 노력하세요. 대신 수학을 하면서 국어 고민하고, 탐구를 하면서 영어 고민을 할 시간에 차라리 눈 앞에 있는 공부에 매진하세요. 계획은 휴식시간에 고민해도 되니까, 오늘이 수능 일주일 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복습하세요.

② 아파요

무리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이 악화돼 일주일을 아프게 보낼 수 있으니, 하루치 계획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아픈 데도 꾸역꾸역 앉아있기 보다는 컨디션 회복에 하루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수능은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무리해서 밤을 새거나 아픈데 고집부리지 말고, 하루 쉬다고 그 많은 날들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컨디션 회복하고 다음날, 다다음날 열심히 하면 돼요.

③ 삼시세끼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수능이라는 장기전을 위한 체력을 준비할 수 있어요. 편식하지 말고 최대한 골고루 챙겨주세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인스턴트나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잘 안되니까, 집밥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너무 포만감 있게 먹으면 졸리니까 70%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드세요!

휴식시간에 특별한 여가, 취미활동이 없다면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굳이 특정 종목이 아니어도 간

단히 산책을 하면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체력관리에도 좋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학교 산책하기로 운동을 대신했는데 어차피 점심을 먹으면 졸려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산책하면서 조용히 쉬거나 친구들과 대화하세요. 조금 휴식을 취하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해요!

④ 일희일비

어떤 과목이든지 문제를 풀면 틀린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파이널 기간으로 갈수록, 본인이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에 더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 틀려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수능 전날까지 틀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면 수능날에는 틀리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⑤ 오프라인 생활

저는 학원보다 인강으로 공부하는 편을 선호해서 인강 수강 시간이 많았어요. 보통 인강은 태블릿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태블릿으로 유튜브나 SNS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이러한 이유로 인강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보면, 눈치가 보여서 인강 외의 목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공간에서 인강을 듣는다면, 잠금 앱을 설정하세요. 저는 독서실에서 수강할 땐 "넌 얼마나 쓰니"로 태블릿을 잠그고 갔어요. 비밀번호는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설정했고, 허용앱만 쓸 수 있게 했어요.

현역 수험생의 경우, 인강을 수강할 때 학교 수업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업시간에 스탠딩 책상으로 나가서 인강을 학교에서 몰아 들었어요. 혹시 인강 시청을 허용하지 않는 선생님이시라면 교과서에 수학 킬러문제를 미리 써놓거나, 포스트잇에 옮겨 적고 수업을 듣는 척하면서 킬러문제를 고민하세요. 보통 문제당 10분씩 고민해야 하는데, 자습할 때 생각하기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이런 수업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⑥ 재는 저것도 했다는데 나도 해볼까

특정 커리큘럼이나, 문제집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물론 인강을 듣고 교재를 풀면서 방법론을 배울 수 있지만, 강의나 해당 문제집 '만' 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커리큘럼을 고민하는 시기가 1~2월과 파이널 기간인데, 이때는 다양한 전략 강의들이 홍보되면서, 옆 친구나 인터넷 후기 등을 맹신하고 무분별한 콘텐츠 남용을 하기 쉬워요. 이럴 때는 불안감을 각종 교재 구매로 해소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공부하세요. 수능 공부는 점점 갈수록 새로운 걸 배우면 안되고 배운 걸 복습해서 균형있게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적어도 하루의 공부를 끝내기 전, 각 과목당 10분만 투자해서 눈으로 빠르게 훑으며 복기해보세요.

⑦ 인간관계 거리두기: 둘 이상 모이면 싸우거나 신세한탄

1년동안 수능을 준비하면서, 재수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 반수를 선택한 친구들이나 현역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각자의 위치는 개인만이 이해할 수 있으니, 타인에게서 이해를 바라려고 하지 마세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여도 사소한 일로 쉽게 싸울 수 있으니까요. 예의는 지키되, 과도하게 친밀한 사이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때 사소한 이유로 싸움이 일어

날 가능성이 커요.

또한 인간관계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남들이 "넌 못 할거야!" 하고 말해도 무시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결국 그 용기는 자신이 해낸 일년의 노력에서 나오게 되어있어요.

㉘ 고마워요, 사랑해요

가족들에게 자주 표현하세요. 대입이 끝나면 철이 든다는 말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는데, 일년동안 고생한 건 자기 자신 말고도, 금전적 지원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준 부모님과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리 수능공부가 힘들어도 수능은 벼슬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수능이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수시로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로 많이 표현해주세요.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여유를 지녔으면 좋겠어요:)

㉙ 말로 정의하면 정말 그런 것 같이 느껴진다

6평까지는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대로 수능형 공부를 시작한지 6개월도 채 안 되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실력이 그렇게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더욱 여름에 슬럼프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슬럼프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고 계속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게 실력 향상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목별 공부량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힘들었고, 수능형 공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 선택을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제 한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서 꾸역꾸역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공부가 습관이 되고, 그러한 날들이 모여 1등급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㉚ 예의 바른 투명인간 되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정시를 혼자 준비하려면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해요. 저의 경우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제 선택을 이해해주셔서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수업시간은 몰래 뒷자리에서 자습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정시를 선택했다고 해도, 선생님들에게 예의는 지켜야 해요. 가령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과 본인 모두에게 꺼끄러운 관계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수능은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늦은 오후에 끝나는데 이 사이에 낮잠을 잔다면, 생활패턴을 고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실속있게 공부하되, 예의는 지키는 선에서 사각 지대를 활용해 자습하는 게 좋아요.

7. 수능 당일의 경험담, 합격 소식을 듣던 그날의 기억

저는 잠이 많은 편이라 항상 귀가 후 꿈도 안 꾸면서 쓰러지듯 잠을 잤는데 수능 3일 전부터는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도 여러 번 깬고, 꿈 속에서도 수능을 망치는 꿈을 꾸면서 힘들게 잠이 들었어요. 수능 당일에도 10시에 잠을 청하기 시작했는데, 한달 전부터 일찍 잠을 청하는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평소처럼 나갈 준비를 하고, 도시락을 들고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차가운 새벽 공기 받으면서 '수능만 끝나면 이 시간에 절대 안 일어나야지!'하고 다짐했어요.

수능 전날 미리 이동 동선을 구상하기 위해 수험장에 방문해보았는데 15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당일에는 넉넉히 45분 전에 나왔는데 근처 길이 공사중이라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않아서, 30분이 걸려 도착했어요. 수능날에는 예상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가보는 학교 내부를 보고 긴장이 될 줄 알았는데 별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체온 측정, 손 소독 등을 마치고 고사장에 입실했어요. 저는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평소 모의고사를 볼 때 사용했던 예열 지문 2개를 들고 갔는데 생각보다 고사장에 수험생이 많이 도착해 있어서 놀랐어요.

이후 기억은 사실 잘 나지 않아요. 가장 긴장된 시간은 국어 시험 10분 전이었는데, 평소에 유튜브에서 활용한 멘탈 강화용 ASMR 속 타종소리와 고사장 타종소리가 비슷해서 더 안심이 되었어요. 국어를 보고 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수학 실수노트를 보다가 수학 시험을 보고, 점심을 적당히 먹고 후식으로 샤인머스켓이 너무 맛있었던 게 기억이 남아요. 운 좋게 같은 고사장으로 배정받은 친한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양치하고 목캔디를 먹으면서 잘 보자고 다짐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수완 영어 자료를 봤는데 영어 시험에 그대로 연계된 지문들이 잘 보여서 편했어요. 한국사와 탐구 사이에는 별도의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연습한 대로 한국사를 일찍 풀고 화장실에 가서 숨 좀 돌리고, 탐구와 제2외국어를 무사히 끝냈어요.

제2외국어를 마치고 나면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답안지와 시험지가 제대로 회수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 고사장은 20~30분가량 소요되었고, 그동안은 답을 맞추지 않고 친구들이랑 수능 끝나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간단히 수다를 떨었어요. (??? : 나 서강대 간다ㅋㅋㅋ 서울 강남 대성...)

스피커에서 귀가해도 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그때부터 고사장을 나갈 수 있어요. 마침 운 좋게 교문에 저희 가족이 도착해서, 코로나 때문에 외식은 못하고 방문포장을 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날은 정말 깊이 잠들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8.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짧은 시간동안 칼럼을 연재하면서 다양한 고민들을 받았고, 많은 친구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년동안 후회하지 않고, 완전히 불태울 수 있는 원동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열어지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사라지기 쉬워요. 또한 열정으로 일년을 버티기에는 수험생활이 너무 길게 느껴질 거예요. 수험생활은 자신이 공부한만큼 곧바로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정시로 마음을 굳힌 이상, '책임감' 이 한 단어로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마음도 좋고, '효도하겠다'라는 결심도 좋으니 일년을 수능 공부에 매진해 정시로 가겠다고

말한 당신의 다짐에 책임을 지세요. 지금은 수능 준비 초반이라 수많은 학습자료들과 방법들, 칼럼들을 보며 괜히 불안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이 남았으니까 이정도는 놀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유혹이 많이 올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인지하되, 그 인식을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한 두가지의 여가를 하는 건 좋지만, 독서실에서 땀짓을 하거나 친구들과 탈주해서 놀거나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 결국 불안해지기만 하고, 자기 혐오로 이어지더라고요.

수많은 모의고사들을 보았고 그때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안 오르면 자책을 하기 일쑤였고 처음 준비해보는 큰 시험 앞에서, 어떻게 시작해 나가야 할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이 올려 주시는 칼럼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후배들에게 제가 걸어온 길을 오르비라는 기회를 통해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